協会消息

제6회 定期 理事会 開催

제6회 이사회가 지난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金枝泰회장 주재로 열렸다.

개회사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된 주요업무는 한일병원세미나, 도시환경과 가로조형 책자 발간을 비롯해서 금년도 일반 및 특별전형 건축사시험 합격자 현황 등과 주문주택 사업광고에 대한 조치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했다. 특히 주문주택 등 건설회사에서 제작하는 설계도서에 명의대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하고 적발시는 엄중처벌한다는 공문을 회원 사무소에 발송토록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부의안건으로 한·일 건축사 교류촉진을 위한 합의각서(안) 승인을 비롯해서 경기지부 관할 남양주분소 설치의 건, 건축사법 개정건의(안) 등이 논의 처리되었다.

부의안건 처리에서 한·일 건축사 교류촉진을 위한 각서(안)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단 각서 조인 후에 실무자 회의를 개최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경기지부 관할 남양주분소 설치의 건은, 의정부분소를 이용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남양주·가평·양평군 내 회원의 교통사정과 인력·시간 등의 경제적 편의를 도모키 위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아울러 각시도지부 분소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도 논의되었다.

한편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 검토에서는 최종 심의위원으로 유경철 건축연구위원장과 윤봉원 법연구분과위원장 및 사무처로 하여금 최종안을 보완·확정케하여 금년 6월 중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키로 결의하였다.

그밖에 민원사무처리 규정(안)도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건축연구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 승인되었고 국제협력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토록 하되 위원회 구성안을 작성하여 차기 이사회에 상정토록 의결하였다.

끝으로 기타 사항에서는 신축회관에 사용될 외장 타일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캐논 세라믹스(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CTP-2 타일로 결정되었다.

建築士誌 으뜸상
전국 사보 콩크루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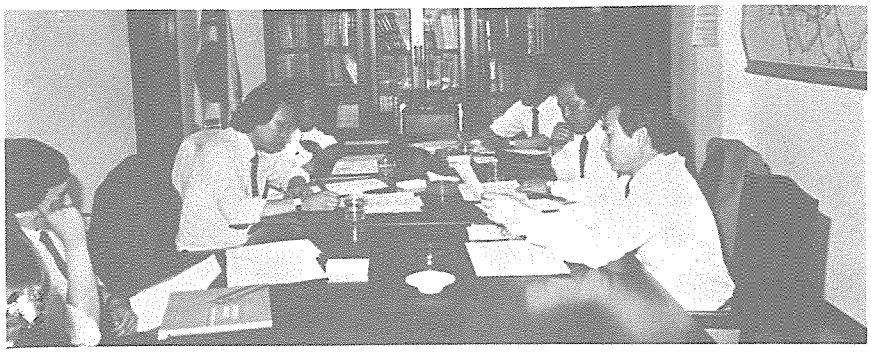
청주대학교가 주최한 제1회 전국 사보 콩크루 대회에서 본회가 발행하는 建築士誌가 전문지 부문 최고상인 으뜸상을 받았다.

동대학교 법정대학 신문방송학과가 주관하고 충청일보·연합통신 청주지사·청주KBS·청주MBC·청주상공회의소 등의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각 회사·단체 등의 사보가 경합을 벌였으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박유봉교수가 맡았다.

한편 시상식이 거행된 6월 5일에는 동교 본관 세미나실에서 한국 광보연구소 오소백소장의 "사보를 통한 기업홍보의 전망" 등의 특별 세미나가 있었다.

建築研究委員会활동

分科別로 研究진행



都市環境研究分科

제 4 회 도시환경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金仁錫)가 지난달 29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부가 본 협회에 연구 요청한 특색있는 단지설계와 종합설계 제도의 도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성룡 위원이 "도시환경과 주택단지의 조성"의 목차와 소주제를 참고하고 "우리의 건축법과 일본의 건축기준법 비교" 자료를 병합하여 연구하되 제도 도입에 문제되는 현행법 조항을 발췌하여 그 향상 방안의 구체적인 예를 연구 발표키로 하였으며 각 위원은 이에 적극 협조키로 했다.

設計図書研究分科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韓鍾彦)가 지난달 9일과 31일 두차례에 걸쳐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9일 회의에서 건축사 감리보수요율 개정에 관한 사항에서는 각 위원이 협회에서 건설부에 승인 요청한 설계 및 공사감리 보수요율 개정안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을 검토키로 하였으며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중 제11조의 개정을 위해 강기세 위원이 연구 발표한 내용을 정리 보완해서 사무처에 전달하고 사무처는 차기 회의시 각 위원이 이에 관 연구를 발표할 수 있도록 사전 통보키로 했다.

한편 31일의 회의에서는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중 제11조의 개정에 관한 건에서 공사감리의 정의는 문맥에 적합토록 골격을 자구 수정하여 세부적인 문구를 수정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 전달키로 의결했다.

建築物 에너지 分科

제 3 회 건축물에너지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成勳燮)가 지난달 15일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 2 회 회의시 거론되었던 단열공사 표준시방 및 품셈에 관한 연구는 조준현 위원이 연구하여 제출한 내용을 차기 회의시에 부의·협의하여 건축사지에 게재키로 의결했다.

또 자연형 태양열 시스템의 설계와 시공에 대한 연구도서 발간은 이경희 위원이 연구방향과 목차를 정하여 적극 추진키로 했다.

設備研究分科

제 4 회 설비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朴容漢)가 지난달 23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고층건물의 공조설비 히터펌프에 대한 연구는 손장열 위원이 전담하여 이를 6 월호 건축사지에 게재키로 의결했다.

또한 고층건물의 전기 설비에 관한 연구중 강전설비와 약전설비는 이영수·송영 위원이 각각 전담하여 강전설비는 6 월호에, 약전설비는 7 월호 건축사지에 게재키로 했다.

한편 본 연구분과위원회 연구실적 단행본 발행은 정기총회 이전까지 펴내기로 했다.

法研究分科

법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尹鳳源)가 지난달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올들어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사법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및 설계·공사감리업무 분리 사항에 대한 검토·협의가 있었다.

構造研究分科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李用夏)의 네번째 회의가 지난달 24일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건축사와 건축사보를 위한 구조현장감리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전담하여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지정(기초·파일 포함)공사 — 전상백 위원 / 거푸집공사 — 정성교 위원/ 철근공사(가공·조립·배근) — 김택진 노희일 위원 / 철근콘크리트공사 — 이창남 위원 / 조적조공사 — 김봉훈 위원 / 철골공사 — 김창서 위원

한편 연구범위는 순수한 구조부문에 한하여 연구·진행하고 가능한 것은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돕기로 하였으며 연구활동은 총회 이전까지 종결키로 의결했다.

伝統建築研究分科

한국전통건축연구분과 위원회(위원장 張起仁)의 네번째 회의가 지난달 16일 오후 4 시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張위원장은 전통건축에 관한 슬라이드 제작에 각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동 연구자료를 회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말했다.

또한 고건축에 관한 자료, 특히 도면을 많이 제출하고 모든 자료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행본으로 발간키로 했다.

한편 이응묵 위원은 홍산 객사에 대한 연구를 계속 추진할 것과 추가로 전남 보림사 대림전에 대한 규모·건축양식의 자료를 연구·수집하여 건축사지에 게재할 것 등을 의결했다.

設計図書·構造研究 合同小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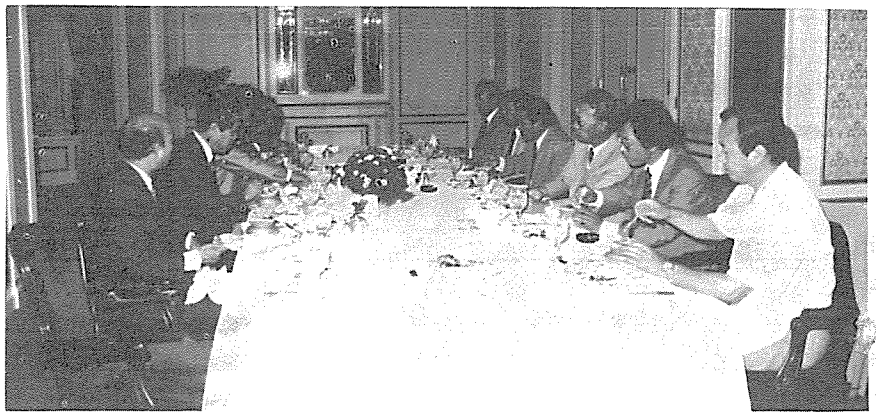
설계도서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韓鍾彦)와 구조연구분과위원회(위원장 李用夏)의 합동 소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오후 본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두 분과위원회의 연구자료 책자 발간에 앞서 도면 표기 방법의 통일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날 합동 소위원회에서는 설계도서 연구분과위의 연구 성과물의 예가 부분적으로 너무 주관적이면서 깊게 설계된면이 있어 구조에 익숙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모든 건축물 설계시 그대로 반영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일반적인 예로 수정키로 하였으며, 구조연구분과위의 철근콘크리트조 구조기준도는 합본시 구조 표준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도면으로 재작도 하기로 했다.

한편 전회원에게 배포될 책자의 크기는 건축사지의 2배로 하고 잉킹한 원도를 사용하되 가능한 한 양질의종이를 사용하여 지면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의결했다.

3단체 조찬회

본회주최로 롯데호텔서



본회주최로 3단체(사협·가협·학회) 조찬회가 지난 5일 오전 8시 롯데호텔 버클리룸에서 열렸다.

3단체 중 새로 선출된 건축가협회의 나상기회장·김정철부회장과 건축학회의 김진일회장·신현식부회장의 인사교환에 이어 본회 김지태회장의 인사말과 본회의 현황 설명이 있었다.

김회장은 본회 현황 설명에서 일본건축사회와의 정식교류 합의 및 신축회관에 관한 사항·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개정 필요성·9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전국순회 작품전시회 등에 대해 말하고 3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앞으로는 2개월에 한번씩 조찬회를 갖자고 제의했다.

한편 건축가협회에서는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최되는 제3회 건축대전에 각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건축학회는 오는 10월27일 있을 논문발표회 행사에 대해 설명했다.

건축행정 제도개선 간담회

본회 및 서울지부 임원참석

건설부주관으로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축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에 김지태 회장을 비롯하여 본부 임원 및 서울지부 임원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건축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척결과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축행정 절차를 개선하고 건축사 업무 수행상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개최된 것이다.

에너지 절약 대책회의

사무처장 참석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 및 대책기구 구성에 관한 대통령 각하의 지시에 따라 건설부는 건설부 소속 전 국장급 및 산하단체 상임이사급으로 구성된 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지난달 29일 첫번째 대책회의를 열었다.

본 협회에서는 임인혁 사무처장이 대책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따라서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에너지 절약에 관한 본 협회의 계획추진 내용을 설명하였다.

먼저 건축물의 단열시공 가이드 북을 발간하여 설계와 공사감리 업무에 참고토록 함으로써 실효를 거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하여는 설계시부터 반영토록 추진할 것과 공사감리시 규격품 사용여부를 검토·확인하도록 재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본 협회 입장을 밝혔다.

또한 본 협회의 각 분과위원회(에너지·설비·시공재료)로 하여금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실시케 하여 이를 건축사지를 통해 홍보하는 등의 추진계획 내용도 덧붙여 설명했다.

韓·日 建築士 교류촉진

합의각서 교환

한일 양국간의 건축기술과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양국 건축사의 상호방문으로 건축문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본협회와 일본건축사회 연합회 간의 합의각서 내용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는 지난 2월 金枝泰회장을 단장으로 한 본협회측 일행이 일본건축사회연합회 太田和夫회장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양단체의 교류촉진을 도모하고자 본협회가 제의한 합의각서(안)를 일본건축사회연합회에서 일부 수정, 통보해 옴으로써 구체화된 것이다.

한편 일본건축사회연합회에서 통보해 온 양국 건축사 교류촉진에 관한 각서(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일 건축사 교류촉진에 관한 각서(안)

대한건축사협회와 사단법인 일본건축사회연합회는 금후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각서를 체결한다.

1. 목 적
   (1)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이해와 우의증진
   (2) 상호기술의 교류와 정보자료의 교환
2. 협력사항
   (1) 상호방문 시찰과 의견교환
   (2) 기술의 교류 및 간행물 등 정보·자료의 교환
   (3) 제외국의 제도·시책 및 기타 자료의 교환
   (4) 학술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의 상호참여 및 공동개최
   (5) 기타 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실무협의
   협력사항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회의 실무책임자를 지명하고 상호 협조방안책에 대하여 협의한다.
4. 각서보관
   한·일 양회간의 실무적인 검토를 통하여 추가, 기타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양회가 서명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1984년 월 일

建設業体의 注文住宅 過大広告

本会가 규제 및 조치에 나서

근래 들어 일부 건설업체들이 일간지와 월간지 등에 자사의 주문주택 광고를 내면서 건축사 업무를 침해하는 문안을 넣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주)한양·라이프주택개발 (주)·현대건설(주)·한신공영(주)·우성건설 등의 시공업체들이 시공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건축물의 설계·감리·허가 또는 준공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건축물의 설계에서부터 인허가·준공에 이르기까지 책임 대행하여 준다는 허황된 내용의 광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어, 본회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건설부와 대한건설협회에 이의 규제·조치를 위한 협조를 의뢰하는 한편,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당해 기업체들에 시정 및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여 한신공영(주)·현대건설(주)·(주)한양·라이프주택개발(주)로 부터 광고내용을 시정하겠다는 해명 회신을 받았다.

또한 본회에서는 이러한 불법적인 일에 동조 내지는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회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 예정이다.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모든 건축물의 설계·감리·등의 업무는 건축사 법에 의해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개설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건설업체들의 행위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축분야 부조리척결에 위배됨과 동시, 법률에 위반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예비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 본회가 적극 이의 규제에 나선 것이다,

본회는 회원의 동조가 없을 때 이러한 일은 발생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와 같은 업체에 관여하여 건축사 업무를 대행하여 주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전회원의 각성을 당부하고 있다.

支部소식

회원친목 골프대회

서울지부, 명성 칸트리에서

서울지부(지부장 吳雄錫)는 지난달 15일 오산 소재 명성칸트리 클럽에서 회원친목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53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吳지부장의 시구로 시작된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김영덕회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그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민경진회원 △준우승/이용학회원 △3등/이창남회원 △4등/박수길회원 △5등/김 호회원 △롱게스트/강석원회원 △리어리스트/이해성회원 △행운상/장기화회원

제1회 임시총회 개최

정화결의 대회도 겸해

인천지부(지부장 高昌永)는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제1회 임시총회 및 제2회 정화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정화결의문 채택에 이어 주요업무 보고가 있었다.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과 건축행정에 따른 지시통보, 지부예산집행 현황 등의 보고가 있었으며, 부의안건으로 간사 보선의 건은 회원 전원일치로 보선을 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회원친목 단합대회 가져

부산지부 / 산업시찰겸해

부산지부(지부장 黃在洙)는 지난달 24일 회원친목 단합대회를 가졌다.

경남 거제군 소재 대우조선공업 주식회사 산업시찰을 겸한 이날 단합대회에는 1백16명의 회원 및 직원이 참석하여 회원간의 유대강화를 다짐했다.

범죄없는 마을과 자매결연
충남지부 현판식 가져

충남지부(지부장 柳根洌)는 범죄가 없는 금산군 제원면 구억 1리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 5. 15일 현판식을 가졌다.

유근열지부장과 임직원 및 관내기관장 그리고 마을 주민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가진 현판식에서 柳지부장은 마을대표 최 대종씨에게 삽 1백 8개, 타올 1백10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다짐했다.

体典참가 선수단격려
제주지부 자매선수단에 격려금

제주지부(지부장 高英重)는 지난 5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13회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한 대구시 선수단 본부를 방문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동지부는 지난 2월 소년체전 지원을 위한 성금 1천2백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개막된 소년체전에 참가하고 있는 자매결연 선수단인 대구직할시 선수단 본부를 방문 격려품(감귤류)을 전달하는 한편 대형 응원프랑카드를 제작 응원단을 조직하여 응원에 참가 하는등 자매결연 선수단과의 친선을 도모했다.

이어 동지부는 제주도선수단을 방문 격려금 30만원(도선수단 15만원·도농구협회 15만원)을 전달했다.

자매결연아동 양육비지원
불우 아동에게 성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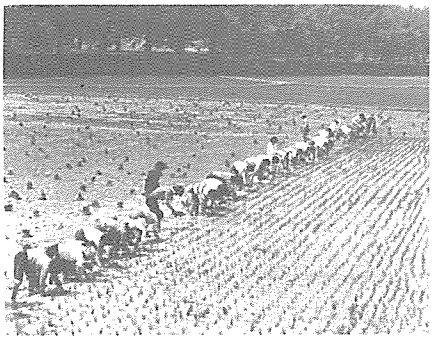
제주지부(지부장 高英重)는 지난달 4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아동의 양육비로 14만4천원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5일에는 불우아동을 돕기 위한 성품으로 7만원 상당의 노트 5백권을 제주 시장에게 전달했다.

농촌일손돕기 행사
충북지부 모내기 지원

충북지부(지부장 吳世炯)는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모내기를 지원했다.

해마다 농촌 일손을 돕고 있는 충북지부는 지난 5. 31일 소속지부 회원 및 직원 그리고 건축사보 등 43명이 참석하여 청주시 복대동에서 8백 30여평의 논에 모를 심어 농민들을 도왔다.



자연보호운동 전개
자율정화결의대회도 가져

경기지부(지부장 林龍洙)는 지난달 19일 회원 및 직원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팔달산 공원일대의 휴지줍기 등 자연보호 캠페인을 벌였다.

한편 경남지부(지부장 李鍾泰)는 지난달 26일 마산 크리스탈 호텔에서 회원 및 직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사안일 추방, 부당건축물 방지, 건축업무 비리척결을 위한 자율정화결의대회를 가졌다.

자연보호 캠페인 벌여
인천지부, 체육대회 가져

인천지부(지부장 高昌永)는 지난달 26일 전회원과 회원사무소 전직원 2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보호 캠페인 및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남구 만수동 소재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된 이날 행사는 건설기술교육원 주변의 오물·쓰레기 수거 등의 청소작업에 이어 각 구별 회원과 각 구별 사무소 직원으로 나누어 축구대회를 가져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였다.

경로주간 간담회
전남지부 추대·고령회원 초청

전남지부(지부장 林在植)는 지난 5월 고령회원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동지부는 지난달 14일 경로주간(8~14일)을 맞아 동지부소속 추대회원 및 고령회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부운영을 비롯, 회원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졌다. 이날 정오부터 시작된 감담회에는 임원 및 고령회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특히 고령회원에 대한 복지대책등이 중점적으로 논의 되었다.

새마을사업비 지원
전남지부 자매부락에

전남지부(지부장 林在植)는 자매결연을 맺은 섬마을을 찾아 새마을 사업비와 운동기구 및 학용품을 전달하고 주민들과 친선을 도모했다.

지난 5월 29일, 지부임원·역대지부장·회원 등은 자매마을인 완도군 청산면 소모도를 방문, 새마을 사업비 50만원과 20만원 상당의 어린이 운동기구와 학용품을 전달하고 주민들을 격려했다.

한편 林在植지부장은 자매마을 관할지역인 완도군수로부터 자매결연 유공에 대한 감사장을 받았다.

새마을 대청소캠페인
충북지부 소속회원등 참석

충북지부(지부장 吳世炯)는 명랑한 거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새마을 대청소 및 캠페인에 참석했다.

동지부 소속임직원 및 회원 21명은 새마을운동 충북협의회가 주최한 새마을 대청소 및 캠페인에 참석했다.

지난달 15일 청주시내 일원에서 실시된 캠페인은 깨끗한 여름철 환경조성을 위해 시가지를 손질하고 나아가 명랑한 거리조성을 위해 벌인 범시민 캠페인이었다.